

공정위, 장기간 독과점 불공정거래 막는다

항공여객·보증보험·아파트관리비 개선안 내년 발표 아이돌굿즈·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위법행위 제재

정부가 내년 초 장기간 독·과점으로 불공정거래행태 발생 소지가 큰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공주택관리 시정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방안은 연내 확정·발표한다.

아이돌 굿즈(goods·상품)와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유료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행위를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계획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

고했다. 우선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공주택관리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발표하는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오랜 기간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분야로,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는 지적이 많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 90%에 달하는 항공여객 운송도 독과점이 고착된 사업으로 꼽히며,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관리·운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분야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유치원 설립기준(교사·교사 직접소유)을 완화하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2월 중 ICT·헬스케어·교육·물류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과거에 유효하던 규제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합당하지 않거나

사업자의혁신적 영업 활동·방식을 제한하고 부처 간 규제 범위·정도가 달라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를 뜯어고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와 통신판매증개입·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약철회 방해와 환불거부 등 위법행위 제재에 나선다. 최근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벌과 갑을관계 개혁에도 더욱 집중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 내년 2월까지 대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을 계속한다.

11월중 전자·기계 등 41개 업종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실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 거래조건 등의 공시 의무화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인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물품을 살 때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세부 운영 규정을 11월중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탄력적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소비자분쟁을 개정해 소비자권익증진 재원을 마련한다.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표시광고법과 제조물책임법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뉴시스

전주대, 유럽 진출 무역상담회 개최... 취업상담 희망자 모집

유럽 13개국 세계한인무역협회 지회장 17명이 26일 전주대를 방문한다.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교수)은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와 공동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유럽지회 초청, 무역상담 및 취업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럽 13개국 17개 지역 World OKTA 지회장들이 전북지역 우수 기업 및 청년들과 1:1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북지역 기업과 청년들이 유럽 진출 및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날 전북도내의 우수상품 전시와 유럽진출 성공사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전주대 LINC+사업단(063-220-316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통계청 '취업자 둔화는 경기·인구·구조적 측면 때문'

통계청이 15일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이유로 경기둔화, 인구효과, 구조를 꼽았다. 인구 증가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충격과 서비스업 무인화 등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최근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3.8%로 동월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상회했다.

통계청은 고용 부진 원인으로 먼저 경기적 측면을 제시,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고용위기지역 소비심리 위축을

불렀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관련 산업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효과 측면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축소되면서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마지막으로 구조적 측면을 들었다. 무인화 기기, 온라인쇼핑 확대 등 유통구조의 변화와 자영업 시장포화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부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그동안 추진해온 통계업무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개선·보완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간... 삶의 주인이 되는 길'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JB 인문학 콘서트 성료'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3회 JB인문학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

JB인문학 콘서트 행사는 인문학적 인기 저자이며 활발한 강연 활동을 통해 대중의 철학자) 잘 알려진 강신주 박사를 초청,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간 - 삶의 주인이 되는 길' 주제로 강연 했다.

강연과 함께 1:1 질의응답, 작가와의 대화, 사인회 등 진행, 인문학 콘서트를 찾은 400여명의 도내 청소년들 및 일반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강신주 박사는 "대부분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다"며,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 부터 시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젊음이라는 인생의 길잡이에서 어딘지 갈 수 있는 시기라며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다양한 경험들을 직접 겪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어렵고 냉철 할것이라 생각했던 강의가 현실감 넘치는 강의로, 철학적 이념에 가까이 다가갈수있는 계기가 됐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김영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 및 일반 관객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지속적인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 '정권 코드 따른 인사 있을수 없는 일'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계청장 교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모습이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청장이 과거 마르쿠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쓴 점을 언급, "황수경 전 청장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등 코드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자 답변에 나선 것이다.

강 청장은 1년2개월 만에 교체된 전임 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의에는 "전임 청장의 평균 임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황 전 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통계청의 일자리와 소득 분배 통계가 악화되자 정부가 통계 당국 수정을 갈아치웠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시스

전라북도 관광산업 '소통과 상생의 길을 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5일 사단법인 전북관광협회(회장 최수연)와 전북 관광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전북관광협회에서는 전북 도내 14개 시, 군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역 내 관광자원(정보, 자료)를 제공, 전북개발공사는(전북관광산업,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관광산업 자원개발 관광사업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지방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본 협약으로 전북 내 관광사업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전북관광협회장은 "외부관광객의 도내 유치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적극적 도내 관광자원 확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는 전북 내에서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역 관광단지(1.0km)를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고 천혜의 관광지인 이 풍부한 부안 모항해수욕장에서 112실 규모의 모항 해니투가족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전라북도관광협회 MOU체결식

2018. 10. 15(월) 11:00 전북개발공사 회의실

전북개발공사가 15일 사단법인 전북관광협회와 전북 관광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뉴시스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신타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